

#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 연구(Ⅲ)\*

- ‘뱀(蛇)’ 모티프의 상징을 중심으로 -

송 영 숙\*\*

(e-mail : venussys@hanmail.net)

---

## 目 次

---

1. 글머리
  2. 십이지(十二支)에서의 ‘뱀(巳)’의 상징적인 의미
  3. 일본의 ‘뱀(蛇)’ 모티프 동물설화의 유형 및 양상
    - 3.1 「뱀 장가가기(蛇簪入)」 유형
    - 3.2 「뱀 각시(蛇女房)」 유형
    - 3.3 「뱀의 보은담(蛇の恩返し)」의 유형
    - 3.4 「작은 뱀의 성장담」의 유형
    - 3.5 ‘뱀’ 모티프의 기타유형과 정리
  4. 마무리
- 

## 1. 글머리

일본의 동물설화에서 십이지 동물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추출하여, 그 유형 및 양상을 살핀 후에 그에 대한 상징성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에 대한 세 번째 단계이며, 십이지 동물 중에서 ‘뱀(蛇)’ 모티프의 상징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sup>1)</sup> 이렇게 십이지 동물을 개별적

---

\* 이 논문은 BK21 「서남권 개발에 대비한 대일 전문인력 양성팀」(2008)의 지원을 받았다.

\*\* 전남대 일본과 강사, 일본문화학 전공.

1) ① 「일본의 십이지(十二支) 동물 민담의 유형 및 양상 『日本語文学』 33,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년 6월. ② 「일본의 십이지(十二支) 동물설화 연구(I) -‘말’(馬) 모티프의 상징에 대한 고찰-, 『日本語文学』 36, 한국일본어문학회, 2008년 3월. 아울러 십이지에 대한 기원 및 그에 대한 의미는 ①의 논문을 참조할 것.

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십이지라는 테마가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 산재해 있고, 또한 일본의 동물설화에 십이지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까닭이다.<sup>2)</sup>

지금까지 일본의 동물설화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연구자들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고,<sup>3)</sup> 그에 대한 결과물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본 설화의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한일의 설화를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고,<sup>4)</sup>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만을 따로 연구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연구에서 필자가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십이지라는 광범위한 문화코드가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따른 상징성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즉, 기존의 동물설화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십이지라는 테마와 연결하여, 그에 따른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을 파악하고, 이어서 그와 관련된 민간신앙적인 속성과 민속모형을 살피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십이지(十二支)에서의 뱀(巳)의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십이지의 상징적인 의미는 실제의 뱀(蛇) 이야기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설화에서 뱀(蛇)의 상징적인 의미를 살피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어서 『日本の民話』(총 26권)<sup>5)</sup>에서 ‘뱀(蛇)’ 모티프의 내용을 분류하여 먼저 그에 대한 유형 및 양상을 정리한다.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대한 예문을 통하여 ‘뱀’이 갖는 민간신앙적인 속성과 민속적 상징성을 살피고자 한다. 예로부터 ‘뱀’은 일본인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뱀과 관련된 많은 속담 및 민속 신앙 등을 파생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sup>6)</sup>에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추출하여 상징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 2) 『日本の民話』에서 십이지 동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총 483화이며, 그 중에서 ‘뱀’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총 165화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3) 야나기타는 『日本昔話名彙』(1948)에서 조수초목담을 동물담에 포함시켰으며, 세키 게고는 『日本昔話大成』에서 세 가지(동물담·본격담·소화)로 분류된 것 중에서 동물담이 이것에 해당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자들에 의해 ‘뱀’ 모티프 설화의 유형도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필자도 『日本の民話』(全 26권)에서 이야기의 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 이와 동일한 유형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번역하고 유형에 따른 양상을 정리하였다.
- 4) 성기열(1985)의 「누적담(累積譚)의 한일비교」, 최인학(1994)의 「한국·오키나와의 설화유형비교」, 김용의(2001)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1)」, 『일본어문학 제10집』, 이현홍(2004) 「夜來者傳承의 移住神話의 성격과 古代 韓日關係 한국문화회 학술총서 세종출판사, 등의 연구가 있다.
- 5) 未来社編(1974) 『日本の民話』(全 26권) 未来社. 여기에는 다양한 제보자에 의해 일본의 거의 전 지역에 걸친 이야기가 채록되어 있어서,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한 텍스트라 여겨진다. 아울러 기존의 다른 동물설화집도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전부 다룰 수는 없으며, 뱀과 관련된 십이지 설화의 참고문헌으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충하고자 한다.
- 6) 여기서 말하는 십이지 동물설화란 십이지 동물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설화를 의미한다.

하겠다.

이렇게 상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상징이 지니는 특수함 때문으로, 상징은 영적 존재의 양태가 동시에 삶의 현현일 수 있으며, 그 결과 직접적으로 인간 실존에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상징은 실재의 구조와 차원을 설명해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미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그러기에 상징은 다가성(ambiguity)을 지니며, 이는 상징이 동시에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임을 말한다.<sup>7)</sup> 따라서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에서 ‘뱀’이 지닌 상징의 다가성을 살피는 것은, 일본 민속 전반에서 뱀의 상징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의 결과물은 일본의 민속, 나아가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 지평선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십이지(十二支)에서의 ‘뱀(巳)’의 상징적인 의미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삶속에서 형성된 십이지<sup>8)</sup>는 우주법칙의 일부를 동물의 형상을 접목하여 상징화한 것으로, 그 기원은 농작물의 정확한 파종·수확시기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십이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행(五行)과 결합하여 많은 상징적인 것들이 생겨났고, 각 나라별로 독특한 민속 문화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새해가 되면 그 해의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과 관련지어 한해의 운수를 점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일이라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현상에 착안하여 ‘뱀(蛇)’ 모티프 동물설화의 상징적인 내용을 살피고자 하며,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전 단계로 여기서는 십이지에서 뱀(巳)의 상징적인 내용과 오행에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십이지의 여섯 번째인 사(巳)에 배당된 동물은 뱀으로, 육십갑자(六十甲子)중에서 을사(乙巳)·기사(己巳)·계사(癸巳)·정사(丁巳)·신사(辛巳) 등으로 다섯 번 순행한다. 시각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까지, 방향은 남남동 삼십도 사이이며, 달로는 음력 4월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절로는 맹하(孟夏) 4월 입춘

7) M. Eliade.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박규태역, 서광사) New York, The Crossroad Publ. Co. 1985, p.35, 재인용.

8) 십이지에 열두 동물을 배열하여 사람이 태어난 해를 가리키는 말을 일본어로는 에토(干支)라고 한다. 그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동물을 열거하면, 쥐띠(子-鼠)·소띠(丑-牛)·범띠(寅-虎)·토끼띠(卯-兔)·용띠(辰-龍)·뱀띠(巳-蛇)·말띠(午-馬)·양띠(未-羊)·원숭이띠(申-猿)·닭띠(酉-雞)·개띠(戌-狗)·돼지띠(亥-猪) 등이다. 이찬욱(1999) 『한국의 띠文化』 황금시대 p.30 p.52

에서 5월 망종(芒種)의 전일까지를 말한다.<sup>9)</sup>

글자의 뜻은 「巳」는 뱀이 구부리면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상징한다. 즉 4월은 양기(陽氣)가 이미 가득 찬 때로 음기(陰氣)는 모두 물러가고 만물이 다 자라버린다(『說文』). 그러므로 만물이 모두 표면으로 나올 때를 말하는 것으로, 뱀이 땅 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를 상징한다.

또한 오행(五行)에서의 사(巳)는 「화(火)」의 시작이며, 동물로는 「뱀」이 배당되어 있다. 이러한 「화」와 「뱀」은 일본인에게는 매우 깊은 인연이 있으며, 특히 일본인은 「산」에 대해 깊은 신앙심을 갖는다. 이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불과 뱀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의 조몬 중기의 제사 토기에는 생생하고 활기에 찬 뱀의 조형이 가득 칠해져 있다. 또한 토우의 여성 신의 머리 부분에도 살무사가 휘감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저히 드러나는 뱀 신앙이다.<sup>10)</sup> 이어지는 야요이 시대에서는 뱀에 대한 조령의 신격은 유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쥐의 천적으로서의 뱀에 대한 「벼의 수호신, 곡물 신의 신격」이 새로이 부여된다. 또한 야요이인은 「비유」를 좋아했으며, 「비유」에 의한 그들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원추형의 산, 즉 간나비(神奈備)산이었다.

이들 산의 신은 예외 없이 뱀 신이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것은 미와야마(三輪山) 신이다. 야마토(大和)의 하늘에 수려한 원추형으로 묘사되어 치솟은 미와야마에서 그들은 묵직하게 꼬리를 틀고 앉은 조상신의 장엄한 모습을 겹쳐 봤던 것이다. 이어서 6세기에 이르자 당시의 선진국인 고대 중국의 문물제도, 철학사상과 함께 오행의 이치가 도입되자 이번에는 이것을 「불의 신」으로 여기게 된다.<sup>11)</sup>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인에게는 뱀을 신격이나 신물(神物)로 여기는 민속신앙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모습을 형상화하기에 이르렀다.

아래의 <사진 1>은 뱀이 꼬리를 튼 모양의 십이지 인형으로 원추형의 산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또한 이러한 모양을 본떠서 <사진 2>와 같이 짚을 꼬아 뱀이 꼬리를 튼 모형을 만들었고, 이는 시네마(島根) 현 등의 신물로 여겨져 오늘날에도 개운(開運)·복운(福運)을 상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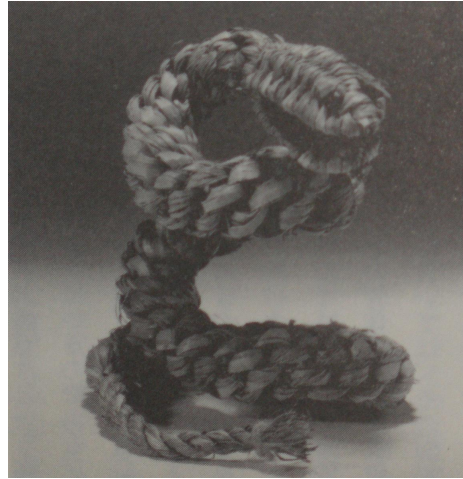
9) 吉野裕子(2004) 『陰陽五行と日本の民俗』 pp.40-46

10) 이집트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이 뱀 신앙은 인도, 극동, 태평양의 제도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에 달한다. 이 전파의 도정에 일본 열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본에 뱀 신앙이 현저했던 것이다.

11) 吉野裕子(2004) 『十二支 - 易・五行と日本の民俗 -』 人文書院 pp.142-144



<사진 1>



<사진 2>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뱀(巳)에 대한 십이지의 상징성이 민간신앙으로 발전하여 생겨난 믿음 즉, 뱀(蛇)이 생활에서 복을 초래한다는 속성이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일본의 ‘뱀(蛇)’ 모티프 동물설화의 유형 및 양상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에서 ‘뱀’ 모티프의 이야기에 대한 유형 및 양상을 추출하여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일은 다음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물의 과학모형에 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민속모형이라는 측면에서이다. 동물에 대한 생물학적인 특성은 시대나 지역에 관계없는 불변의 사실들이며 이는 과학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속모형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른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문화적 상징성을 말한다. 따라서 민속모형이라고 할 때는 같은 동물일지라도 시대나 지역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인간에 의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과학모형의 본래적 의미가 민속모형으로 문화화 될 때, 문화적 맥락에 따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달라진다.<sup>12)</sup>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각 동물에 대한 사유방식(思惟方式), 바꾸어 말하면 여기서는

12) 천진기(2003) 『동물 민속론』 민속원 p.30

‘뱀’이 의미·상징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뱀의 생물학·생태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뱀은 수중(지하세계)과 땅을 왕래하며 겨울에 사라졌다 봄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력·재생력을 가진 동물로 인식되었다. 또한 뱀은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성장할 때 허물을 벗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매년 재생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는 느낌을 주었다. 여기에 생물학적으로 많은 알이나 새끼를 낳는 것은 풍요와 다산(多産)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서 파생된 상징성을 갖는 뱀이 십이지 동물설화에 나오는 대표적 유형으로는 「뱀 장가가기(蛇簪入)」, 「뱀 각시(蛇女房)」, 「뱀의 보은담(蛇の恩返し)」, 「작은 뱀의 성장담(譚)」, 「뱀 연못(蛇が淵)」, 「뱀 돌(蛇石)」, 「창포탕(しょうぶ湯)」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유형은 글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일본연구자들에 의해서 구분되어진바 있으며, 필자도 『日本の民話』에서 이와 같은 유형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이 논문에서 필자가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유형에 따른 양상을 번역하고 그에 따른 상징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뱀과 관련된 민간신앙적인 면과 민속모형을 새로이 살피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어서 각각의 유형과 그에 따른 양상에 대한 예문을 들어가며 상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3.1 「뱀 장가가기(蛇簪入)」 유형

일본의 동물설화에는 인간이외의 것이 인간과 결혼하는 이류 혼인담(異類婚姻譚)이 많다. 이러한 이류 혼인담에는 동물이 인간인 여성과 결혼하거나, 동물이 인간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뱀에 관한 동물설화의 유형 중에서 「뱀 장가가기」와 「뱀 각시」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뱀 장가가기」가 한 가지 유형으로는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25화) 이러한 「뱀 장가가기」 유형을 다시 분류하면 「미와 야마(三輪山)형」<sup>14)</sup>, 「물을 대주는형(水乞型)」<sup>15)</sup>, 「개구리의 보은형(報恩型)」<sup>16)</sup> 등의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

13) 필자는 ‘뱀’ 모티프 십이지 동물설화의 유형을 『日本の民話』에서 도출하여 기존의 유형을 재확인했으며, 그에 대한 유형과 양상을 다시 정리한 후에 각각의 예문에 대한 출전(1권-26권)을 밝혔다. 또한 유형을 번역한 후에는 지면의 한계상 그 원문을 줄여서 기재하였고 그에 따른 상징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이하의 유형에 따른 예문은 필자가 번역·정리한 것이어서 원문을 기재할 수 없다.

14) 딸에게 밤마다 찾아오는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딸은 그 남자의 옷자락에 실을 켜 바늘을 꽂아 놓는다. 다음 날 실을 따라 찾아간 산이 미와산이고, 그 곳에서 바늘에 찔려 죽은 뱀을 발견한다. 오다마키(莚環) 형이라고도 한다.

15) 어떤 마을에 사는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 눈에 물이 부족하게 되자, 농부는 누구든 물을 대 주면 딸을 주겠다고 중얼거린다. 마침 뱀이 이 말을 듣고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한 후 농부의 딸과 결혼하게 되지만, 대개 이 경우에는 딸의 피로 뱀은 바늘에 찔려 정체가 드러나고 결국은 죽게 된다.

한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개구리의 보은형(報恩型)」의 유형

먼저 「개구리의 보은형」은 뱀 장가가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많으며, 1권, 2권, 4권, 10권, 12권, 14권, 15권(2화), 17권, 18권, 19권, 20권에 12화가 수록되어 있다.<sup>17)</sup> 이중에서 4권에 나오는 「황새 둥지(鴻の巢)」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이 뱀에게 잡아먹힐 뻔한 개구리를 살려준다. 그 후 뱀은 남자로 변신하여 노인의 딸과 결혼 하지만, 딸은 병에 걸려서 병세가 점점 심해진다. 어느날 어떤 점쟁이(실은 개구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 둔갑한 것임)가 찾아와 높은 참나무에 있는 황새 알을 신랑을 시켜서 가져 오면 부인의 병은 나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나무를 기어오르던 신랑은 뱀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고, 이 때 어미 황새가 공격해서 떨어져 죽고 만다. 딸은 뱀의 새끼를 3000마리나 뱓지만, 3월 3일 복숭아술을 마시고, 5월 5일 창포 술을 마시며, 9월 9일 국화 술을 마시라는 점쟁이의 말대로 하자, 건강이 무사히 회복될 수 있었다.<sup>18)</sup>

위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개구리의 천적이 뱀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개구리가 뱀에게 복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뱀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거꾸로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개구리의 편을 들어 이야기가 재구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딸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인데, 점쟁이가 말하는 세 시기는 농경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연중행사가 펼쳐지는 시기와 일치한다. 먼저 3월 3일은 조우시(上巳)<sup>19)</sup> 또는 모모노셋쿠(桃の節句)<sup>20)</sup>라고 하여 일본의 다섯 명절 중의 하나이며, 인형을 장식하여 여자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행사를 한다. 모모노셋쿠는 음력으로 복숭아꽃이 피는 계절의 행사라는 데서 비롯된 명칭이며, 그래서 설화에서도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복숭아 술을 마시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5월 5일은 창포가 무성히 피어나는 때로, 이 날은 창포주를 마시고 창

16) 노인이 뱀에게 잡아먹힐 뻔한 개구리를 살려주는 조건으로 뱀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내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점쟁이로 변신한 개구리의 도움으로 뱀 신랑은 정체가 드러나서 죽게 되고, 결국 결혼생활은 실패로 끝난다.

17) 여기에서 말하는 권수는 『日本の民話』의 권수(총 1권-26권)를 표시하는 것이며, 유형에 따른 각각의 제목에 대한 표기는 지면의 한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18) 『日本の民話』에서 4권에 나오는 황새 둥지(鴻の巢)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원문을 기재할 수 없으며, 이하의 예문도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19) 일본의 다섯 셋구(節句)의 하나로 삼짚날이며 전에는 음력 첫 사일(巳日)이었으나, 현재는 음력 3월 3일을 말함.

20) 히나마쓰리(雛祭り)라고도 한다.

포탕에 목욕을 하여 나쁜 영향으로부터 미리 자신을 보호하는 날이다. 그리고 이 날은 특히 7세 이하인 남자 아이들의 성장을 축하하는 날로, 집 밖에는 장대에 고이노보리(鯉のぼり)<sup>21)</sup>를 장식하기도 한다. 여기에 그려진 잉어는 용문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된다는 중국의 속설이 전해진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남자 아이들의 힘찬 성장과 앞날을 기원하기 위해 이러한 행사가 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 대한 내용이 설화에도 반영되어 5월 5일에 창포술을 마시라는 내용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며 이 날은 국화 술을 마시는데, 국화주는 밤밥(粟飯)과 함께 불로장생의 음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또한 양(陽)은 생(生)을 의미하는 것으로, 9는 양의 수이어서 두 개가 나란히 겹치는 9월 9일은 불로장생을 기원하며 서로를 축하했던 것이다.<sup>22)</sup> 위의 설화에서 이렇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봄, 여름, 가을의 특별한 절기에 맞추어 술을 마시라는 것은 도작(稻作)시대의 농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연중 행사시기로, 이는 술을 마셔서 딸의 병을 고치듯이 실제의 생활에서도 원기를 회복하여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또한 옛날부터 이러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기를 중요시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내용을 ‘뱀’모티프의 설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정리하면 「개구리의 보은형」은 수신(水神)의 상징이었던 ‘뱀’ 모티프 이류혼인담 유형의 이야기에, 농경사회의 절기가 접목되어 동물설화에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도작사회에서 수신의 상징이었던 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위세가 쇠락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인간에 의해 수리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자 퇴치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개구리의 보은형」은 벼농사의 시기에 일어나는 변화가 이류혼인담과 연계되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② 「물을 대주는 형(水乞型)」의 유형

두 번째로 많은 이야기는 「물을 대주는 형」으로, 2권(2화), 3권, 9권, 12권, 19권, 25권에 모두 7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3권의 「뱀 사위(蛇の婿)」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눈에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금방 말라버려서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집이 있었다. 농부는 딸을 주면 눈에 물을 대 준다는 어떤 남자(실은 뱀이 변신했음)의 말을 듣고, 딸을 주기로 했다. 셋째 딸이 뱀의 아내가 되어 산으로 가

21) 종이나 천 등으로 잉어 모양을 만들어, 단오(端午) 때 기(旗)처럼 장대에 높이 다는 것.

22) 国民文化研究会 塩田 勝 編(1985) 『日本の年中行事』 金園社 p.204



서 살던 중에 어느 날 친정으로 놀러가게 된다. 딸은 아버지가 떡을 좋아 하니, 뱀 신랑에게 절구에 떡을 넣은 채로 매고 가라고 부탁한다. 둘이서 산길을 내려가던 중, 아내는 뱀 신랑에게 아버지를 위해 꽃을 따 달라고 부탁하면서, 나무 밑에 바늘을 갈아 놓는다. 꽃을 따던 중에 뱀 신랑은 절구가 무거워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고, 결국 바늘에 찔려 뱀의 정체를 드러내며 죽고 만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뱀은 물과 인연이 깊고, 각지의 연못이나 여울에는 뱀이 사는 곳이 많았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장소에서 뱀을 본 사람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각 종의 전설이 생겨났으며 뱀은 점점 물의 관리자로서 위치지어 졌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도작농경이 주된 시절에는 그 밭에 물을 공급하는 강이나 비와 관련된 존재로서 뱀은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물을 자유자재로 관장한다고 여겨지는 뱀이 등장하게 된다. 즉 수신(水神)의 상징인 뱀이 남자로 변신하여 여자와 결혼해서 결국에 죽고 만다는 위와 같은 이야기는, 그 수신의 위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쇠락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새로운 문명(여기서는 철기문명을 말함)이 유입되어 그 중요성이 끝나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물의 제어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충분했으며, 홍수나 가뭄 등의 피해로 인하여 신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뱀을 죽이는 과정에서 바늘이 등장하는 것은, 그동안 신이 관리하고 있던 물을 인간의 힘에 의해 관리하게 되었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다.<sup>23)</sup> 그만큼 인간의 지식과 기술(철기류의 등장)이 발달하여 힘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며, 여기에는 또한 청동기문화권에서 철기문화권으로의 이행의 시기가 엿보인다. 달리 말하면 철기문화권에서의 토템의 대상이었던 뱀은, 점차적으로 부적으로도 사용되어 친밀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점점 뱀의 생태학적인 모습과 결부되어 결국에는 터부시 되어 이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조몬·야요이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수신의 성격을 지녔던 ‘뱀’ 모티프 이야기는 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금속성 물질인 바늘이 등장하자 수신으로서의 역할은 약해진다. 이는 강력한 새로운 문명의 도입에 의해 농경 사회에 있었던 기존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더 강한 새로운 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 ③ 「미와 야마(三輪山)」의 유형

「물을 대주는형」에 이어 「뱀 장가가기」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은 「미와

23) 佐藤健一郎 외 2人(2000) 『十二支の民俗誌』 八坂書房 pp.112-115

야마」 유형으로 7권, 8권, 9권, 14권, 20권, 24권에 모두 6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7권에 나오는 「일곱 바구니의 뱀 알(七つの滝壺の蛇)」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쁜 여자의 방에 그녀의 부모 몰래 매일 밤 찾아오는 잘 생긴 남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 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남자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하자, 어머니는 딸에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머리를 침으로 찌르라고 말한다. 그날 밤 딸에게 젊은이가 찾아오자, 딸이 남자의 머리를 침으로 찌렀다. 그러자 젊은이는 곧 큰 뱀으로 변해버렸으며, 임신이 되었던 딸은 그 후에 일곱 바구니 가득 뱀 알을 낳았다.

이러한 「미와 야마」 유형의 이야기는 그 내용이 전승되는 지방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sup>24)</sup>

- 첫째,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처녀 방에 매일 밤 내방한다.
- 둘째, 그 사나이의 정체를 알기 위해, 또는 퇴치하기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계락을 잔다.
- 셋째, 내방자의 정체가 바늘에 찔려 확인되는데, 대개가 뱀으로 밝혀진다.
- 넷째, 영웅이 출생한다. 또는 행사의 유래나 신이 탄생한다.

이러한 미와야마식 전설로 알려진 통칭 야래자형 설화는 등장인물과 결말 부분에 있어서 『삼국유사』의 견훤전설과도 일치한다. 이는 문헌사적으로나 한일 민담의 유형연구로도 비교할 가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동물설화와 관련된 내용의 상징적인 부분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위의 미와야마는 오늘날까지도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산으로, 그 전체를 신체(神體)로 받들어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있는데, 이 산의 조상신은 뱀이었다.<sup>25)</sup>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한일연구자들의 연구가 진행된바 있으나, 뱀이 상징하는 것을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징성을 밝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먼저 철과 뱀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는 야마타노오로치(八岐大蛇)의 꼬리에서 구사나기노쓰루기(草薙の劍)<sup>26)</sup>가 나온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즈모(出雲)에서 사철(沙鉄)을 이용했던 제철자들은 한때 뱀을 조상으로 하는 시대가 있었으며, 이들은 조상에게 왕권을 인정받는 보옥(宝玉)을 손에 넣는다.<sup>27)</sup> 이 과

24) 崔仁鶴 著(1994)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한국·오키나와(沖繩)의 설화유형비교」 pp.133-179

25) 노성환 역주(1990) 『古事記(중)』 예전사 pp.99-100

26) 일본 황실의 세 가지 신기(神器) 가운데 하나인 검.

27) 井本英一(2000) 『十二支動物の話』 <子丑寅卯辰巳篇> 法政大学出版社 pp.335-336

정에서 뱀을 죽이는 것은 옛날 왕을 죽여서 조상의 영을 이어받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그러한 전통에 뱀과 관계있는 이기(利器)의 수여가 행해졌던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파생된 유형으로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물을 대주는 형(水乞型)」의 유형처럼 시기적으로 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미와 야마」 유형의 상징적인 내용은, 철기문화의 새로운 세력이 기존의 청동문화권을 대체하면서 생겨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와야마의 조상신은 뱀 꼬리에 있던 성스런 영혼을 여성에게 옮겨서, 천자(天子)로서의 자신의 아들을 얻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렸던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이다.

### 3.2 「뱀 각시(蛇女房)」유형

「뱀 장가가기」의 유형과 대응되는 이야기는 「뱀 각시」이다. 이 내용 역시 이류 혼인담에 속하는 것이며 1권, 5권, 7권, 11권, 18권, 19권, 21권, 22권, 23권(2화), 25권에 11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권 「뱀 눈알(蛇の目玉)」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 남자가 산 속에서 나무에 묶여있는 여자를 구해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 아내는 자신이 아기를 낳을 때 절대보지 말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남편은 걱정이 되어 아내가 아기 낳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아내의 정체는 큰 뱀이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내는, 자신은 산신의 노여움을 사서 뱀이 되었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남자가 배반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뱀이 되어 호수로 돌아가야만 한다면서, 태어난 아들을 위해 눈알을 빼 준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주술이 풀리게 되어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위의 이야기는 일본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전래동화 중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으로, 무조건 적인 사랑을 베푸는 엄마인 뱀과 아들과의 사랑이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엄마인 뱀은 그녀의 남편이 금기를 어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호수로 돌아갈 때 아이를 위해서 한 쪽 눈알을 빼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그 눈알을 다 빨아먹어서 닳아지자 이번에는 또 다시 남은 한 쪽 눈마저 빼준다. 이후 엄마 뱀은 봉사가 되었지만, 그러한 엄마에 대한 아이의 순수한 사랑으로 결국에는 엄마 뱀에 대한 주술이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뱀에 대한 두 가지의 상징성을 살필 수 있다. 첫째는 수신(水神)의 성격이며 둘째는 산신(山神)으로서의 성격이

다. 먼저 뱀은 봄에 동면에서 깨어나 논(水神)의 신으로서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추수가 끝난 겨울에는 산의 신으로서 또 다시 산으로 돌아간다. 위의 이야기에 나오는 산과 호수의 설정은 농경사회에서의 수신인 뱀과, 풍요로움의 상징인 산신으로서의 성격을 둘 다 내포하고 있다. 이는 도작사회에서 뱀이 풍요로움을 초래하는 산신과 수신으로서 민간에서 신앙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엄마 뱀의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모습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금기시하는 모티프는 『古事記』와 『日本書紀』 양쪽에 등장하는 도요타마히메(トヨタマヒメ)의 내용과도 매우 비슷하다. 해신(海神)의 딸이었던 그녀는 출산 할 때 『日本書紀』 제1·제3의 1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악어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반면 『古事記』와 『日本書紀』 본문에는 악어가 아니고 용으로 변신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출산 장면이 남편에게 목격되자, 도요타마히메는 수치심을 느끼고 바다로 돌아가는데,<sup>28)</sup> 여기서 바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설화는 바다를 무대로 삼았던 해인족(海人族)이 일본에 체류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한 설화를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본래 그들이 가졌던 설화의 내용도 덧 붙여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 3.3 「뱀의 보은담(蛇の恩返し)」의 유형

동물설화에 나오는 뱀에 관한 유형 중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뱀의 보은담」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유형은 뱀이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다는 주제가 공통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뱀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모티프로 구성되었다. 설화에서 「뱀의 보은담」의 유형은 18화가 나오는데, 뱀에 관한 이야기가 총 165화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먼저 뱀이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가 2권(2화), 10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보은(報恩)의 내용은 다르지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유형이 11권(2화), 12권, 16권, 17권(3화), 19권, 20권, 23권에 10화가 실려 있다. 이 중에서 11권의 너구리와 뱀의 보은담(ムジナとマムシ恩返し)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옛날에 홍수가 나자 할아버지가 강물에 떠내려 오는 사람과 너구리와 뱀을

28) 中村禎里(1984) 『日本人の動物観』 海鳴社, pp.38-43

막대기를 이용해서 건져주고 집으로 데려와 음식까지 주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할아버지가 살려줬던 사람은 돈까지 훔쳐서 할아버지 몰래 달아나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낙심하자 너구리와 뱀(살무사)이 그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그는 주막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뱀이 몰래 그 사람의 발을 물었고, 뱀 독 때문에 그 사람은 괴로워했다. 이 때 할아버지가 나타나 뱀 약을 그 사람에게 먹이자 통증이 사라졌고, 그곳에 모였던 마을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할아버지에게 뱀 약을 사게 되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뱀이 만 들어준 뱀 약 덕분에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설화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림에도 불구하고, 미물인 뱀과 너구리는 은혜를 갚는다는 다소 풍자적인 면도 담고 있다. 그래서 설화의 유형도 뱀의 보은담이며, 이러한 내용은 뱀이 상징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먼저 십이지에서의 뱀(巳)의 상징적인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뱀의 빠리는 원추형의 산을 상징하였고, 그러한 모양에서 비유를 좋아했던 야요이인들은 거기에서 미와야마를 상상했으며 또한 조상신의 장엄한 모습을 겹쳐봤다. 그리고 뱀(巳)은 오행에서의 화(火)를 상징하는데, 이는 재물과 연관이 되므로, 뱀은 점점 민간에서 개운(開運)이나 복운(福運)을 상징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설화 속에서 뱀이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준 뱀 약 덕분에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뱀이 일상생활 속에서 복을 초래하고, ‘재물’을 상징한다는 민간의 속성이 설화에 흡수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속담을 살펴보면 ‘뱀의 해에 태어나면 돈에 구애 받지 않는다’ ‘뱀 꿈을 꾸면 돈을 준다’ ‘뱀에 몸을 접촉하는 꿈을 꾸면 광산을 발견한다’ 등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민간신앙에서는 뱀이 재복(財福)을 상징하는 길상의 동물로 여겨졌으며, 이는 십이지에서의 상징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이러한 생각에서 옛 사람들은 상상 속에서 뱀을 도와주고 그로인해 복을 받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을 그렸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영향이 설화에도 흡수되어 상징적으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도 뱀이 개운이나 초복의 신물(神物)로 여겨지는 것(p.5)은 바로(지움)이와 같은 이유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4 「작은 뱀의 성장담」의 유형

「작은 뱀의 성장담」은 「뱀의 보은담」의 유형 중에서 따로 구분한 것이나,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뱀의 보은담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3권, 7권, 8권, 16권, 24권(2화)에 모두 6화가 실려 있으며, 「뱀의 보은담」 중에서 뱀이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이야기만을 따로 구분한 것이다. 이 중에서 16권 「뱀 딸(へび息子)」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가 없이 지내는 노부부가 어느 날 큰 알을 주었다. 그런데 그 알 속에서 새끼 뱀이 나왔고, 그 뱀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식 대신으로 귀엽게 키웠다. 하지만 ‘하루’가 점점 커지자 하루가 무섭다고 생각한 마을사람들이 ‘하루’를 마을에서 내 쫓았고, ‘하루’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루’가 있던 곳에는 큰 연못이 생겼고, 그 주변에는 벚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어느날 마을사람들이 꽃구경을 갔는데, 그곳에서 부잣집 딸이 실수로 연못에 빠지고 만다. 이 때 마침 ‘하루’가 나타나 그 딸을 구해주자, 부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병들어 누워있는 ‘하루’의 부모를 잘 보살피겠다고 하루에게 약속한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대개가 부모와 함께 살던 뱀이 성장한 후에는 마을사람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나며 할 수 없이 산 속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하지만 뱀은 마을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한 자신을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반드시 보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설화에서 보듯이 하루가 살던 곳에 큰 연못이 생겼다는 것은 뱀에 대한 수신(水神)적인 성격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연못에서 부잣집의 딸이 빠진 것을 하루가 구해주고, 그로인해 하루가 부모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과 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내용 역시 뱀이 일상생활에서 복을 초래한다는 민간신앙적인 일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십이지에서의 뱀(巳)의 상징적인 내용인 개운과 복운이 더해지고, 여기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뱀의 생물학적인 특징이 뱀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성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 3.5 ‘뱀’ 모티프의 기타유형과 정리

뱀에 관한 이야기의 유형은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면 외에 부정적인 내용도 많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뱀 퇴치에 대한 것으로 3권(「菅沼の大蛇」, 「大悲山の大蛇」), 7권(「二つの月」), 8권(「蛇体丸」, 「八重笠村の沼」), 15권(「吉光黒兵衛」), 16권(「阿弥陀山の大蛇」, 「魔除け鏡」, 「火呑山大の蛇」), 21권(「高島の蛇谷」) 등에 모두 10화가 나온다. 내용은 마을의 호수에 사는 뱀이 주로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스님으로 하여금 독경을 하게하여 진정시킨다는 것이 주로 많다. 이렇게 뱀을 퇴치하는 이야기도 역시 뱀의 특이한 생태학적인 특색에 기인한다. 뱀이 사지(四肢)가 없이 가늘고 긴 독특한 체형으로 사행운동에 의해 전진하는 모습이나, 날름거리는 혀로 먹이 감을 노려보는 자세, 또한 꼬리를 트는 특유의 공격과 방어 자세는 인간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형의 영향은 뱀을 기피하는 내용으로 설화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 딸이 뱀으로 변해버린 유형의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8권(赤城小沼のぬし), 12권(蛇娘), 16권(三つ池のむこ蛇物語), 19권(海老ヶ池の大蛇), 20권(大蛇執念), 22권(大浪池), 23권(銀杏の木), 25권(べべ食い大蛇) 등에 총 8화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단오절에 창포탕에 목욕하는 유래의 내용은 이류혼인담의 「뱀 장가가기」에서 따로 분류한 것으로, 공통적인 내용은 뱀이 남자로 변신하여 딸에게 밤마다 찾아오는 야래자형 설화이다. 마지막에는 남자의 정체는 뱀으로 밝혀지고 그 뱀은 죽게 되지만, 딸이 이미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독을 풀기 위해서는 창포탕에 목욕을 해야만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3권(あやめ娘としょうぶ湯), 11권(絶句のしょうぶ湯), 12권(しょうぶ湯), 17권(桃酒と菖蒲酒), 18권(桃の花酒と菖蒲酒) 등에 총 5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5월 5일 단오에 액운을 미리 막기 위해서 창포탕에 목욕을 하는 유래에서 생겨난 이야기라고 여겨진다.

이어서 뱀이 먹은 독풀(또는 독버섯)을 사람이 따라 먹어서 죽거나,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풀이 생겨나는 유형의 이야기가 1권(安兵衛さまの話), 15권(広衛門大尽), 17권(とけてしもうて蕎麦団子), 21권(溶けてしまった侍), 22권(そばになった男) 등에 5화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민물게가 보은(報恩)을 하는 「민물게의 보은담」에 관한 공통적인 이야기가 6권(沢蟹の恩返し), 7권(蟹と花嫁), 9권(蟹と女子衆), 20권(ツカにの恩返し) 등에 4화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개구리의 보은담과 그 내용은 같지만, 주인공이 개구리가 아닌 민물게로 바뀌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이외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뱀으로 변해버리는 이야기가 5권(お経塚, お小夜沼, 久津方の子引田)에 3화, 스님이 누명을 쓴 채 연못에서 자살한 후 뱀으로 변해버리는 이야기가 6권(坊主のあだ)에 1화가 나온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난 이유는 뱀이 먹이 감을 노려볼 때 참을성이 강하고, 방심하지 않으며 순식간에 습격하는 습성으로 인해 집념이 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집념이 강한 사람을 「뱀처럼 집요하다」라고 하며, 그리고 집념이 강하며 뼈딱한 성격을 「뱀 근성」이라고도 비유한다. 그리고 「질투가 심하면 뱀이 된다」라든가 「뱀과 승려의 지별은 무섭다」와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승려도 집념이 강한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스님이 뱀으로 변하는 설화도 생겨났다고 여겨진다.

또한 여자의 질투에서 생기는 집념이 무섭다는 것은 3권의 안친과 기요히메(安珍と清姫)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도쵸지(道城

寺)의 전설<sup>29)</sup>과도 같은 내용이며, 그만큼 여자의 질투가 무섭고 지독하다는 것을 뱀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비유하여 생겨난 상징적인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에서 ‘뱀’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등장 빈도수는 165화로 십이지 동물 중에서 가장 많으며, 그만큼 일본인과 뱀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류혼인담과 연계된 뱀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십이지에서의 상징적인 면이 민간신앙과 결합되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대한 뱀의 상징적인 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형이 남근(男根)과 비슷하며, 두부(頭部)는 여음(女陰)을 상징하므로 이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둘째, 탈피에 의해 거듭 태어나 생명을 갱신하는 모습은 뱀을 영원한 생명체로 여기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뱀의 재생·불사의 일면을 보았다.

셋째, 먹이 감을 잡을 때 일격에 의해 적을 압도하는 뱀의 독은, 강함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뱀과 밀착된 이야기가 일본인의 생활에서 많이 생겨났으며, 이러한 내용은 일본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청동기문화권에서 철기문화권으로의 이행시기에 철기문화권의 토렘이었던 뱀은, 그 생물학·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이류혼인담의 주역으로 등장한다. 동시에 그 생태학적인 특성 때문에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 「뱀 퇴치」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 4. 마무리

뱀은 옛날부터 사람의 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숭상되는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뱀을 한편으로 이렇게 신성시하고 신으로까지 받드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이는 뱀의 다양한 생물학·생태적인 특성과 또한 십이지의 상징성과도 결부된다. 이 논문에서는 뱀과 관련된 이러한 현상을 일본의 십이지 동물설화에서 그 유형 및 양상을 살핀 후에 그에 대한 상징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뱀은 이류혼인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뱀 장가

29) 유부남인 안친(山伏: やまふし-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킴)을 사랑한 기요히메는 그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자 강에서 투신자살하여 뱀이 되어 버린다. 뱀이 되고서도 기요히메는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친을 쫓아간다. 안친은 그 뱀을 피하여 도조지(道城寺)의 큰 종속에 숨지만, 뱀은 그 종을 칭칭 말아서 그 독으로 안친을 죽게 한다.



가기]와 「뱀 각시」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뱀 장가가기」는 또 다시 「미와 야마(三輪山)형」, 「물을 대주는형(水乞型)」, 「개구리의 보은형(報恩型)」 등의 세 가지로 나뉠 정도로 그 이야기가 다양하다. 이렇게 유형이 많은 이유는, 뱀이 지니는 생물학·생태학적인 특성에서 생겨난 내용과, 「문화의 창」을 통하여 또 다시 새로운 민속모형이 부가되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뱀의 외형이 남근과 여근을 상징하는 것에서 이류혼인담의 이야기가 파생되었으며, 또한 육지와 물에서 자유로운 뱀의 활동상의 특성은 수신(水神)의 모습으로 비치는 동시에 이류혼인담과도 연계되었던 것이다. 또한 청동기문화권에서 철기문화권으로의 이행시기에 철기문화권의 토LEM이었던 뱀은, 신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그 생물학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이류혼인담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뱀 각시」의 유형 또한 이류혼인담의 내용이며, 기존의 일본에 있었던 뱀 이야기에 해양세력이 유입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가미되어 재편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대표적 이야기는 도요타마히메의 유형이며 이는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연원(淵源)이 길다.

이외에 뱀은 십이지(十二支)에서의 상징성인 개운(開運)·복운(福運)이 민간 신앙과 결부되어 일상에서 복을 초래한다는 길상의 동물로 여겨졌다. 이는 「뱀의 보은담」 「작은 뱀의 성장담」 등의 유형에서 인간에게 은혜를 갚을 때 돈을 주거나 돈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내용은 속담에 나오는 뱀과 재물과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뱀은 일상 생활에서 인간에게 조령으로 받아들여지는 동시에 복을 초래하는 동물로 상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뱀의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기인된 뱀의 집요한 특성이 여자의 지독한 질투나 승려의 집요함 등에 비유되어 부정적인 이야기로도 나온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뱀의 생물학적인 특성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활에 투영된 「민속모형」을 통해 생성된 이야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뱀」 모티프의 이야기는 상징의 특성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많은 민속·문화 분야의 「뱀」 상징의 내용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参考文献】

- 未来社編(1974) 『日本の民話』(총 26권) 未来社.
- 김용의(2001) 「한일 동물설화의 비교연구(1)」 『일본어문학 제10집』 한국일본어 문학회
- 이찬욱(1999) 『한국의 띠文化』 황금시대 p.30 p.52
- 천진기(2003) 『동물 민속론』 민속원 p.30
- 崔仁鶴著(1994) 『韓國民譚의 類型 研究』 「한국·오키나와(沖繩)의 설화유형비교」 pp.133-179
- 井本英一(2000) 『十二支動物話』<子丑寅卯辰巳篇> 法政大学出版社 pp.335-336
- 国民文化研究会 塩田 勝 編(1985) 『日本の年中行事』 金園社 p.204
- 佐藤健一郎 외 2人(2000) 『十二支の民俗誌』 八坂書房 pp.112-115
- 中村禎里(1984) 『日本人の動物観』, 海鳴社, pp.38-43
- 吉野裕子(2004) 『十二支 -易·五行と日本の民俗-』 人文書院 p.142-144
- \_\_\_\_\_(2004) 『陰陽五行と日本の民俗』, pp.40-46
- 송영숙(2007) 「일본의 십이지(十二支) 동물 민담의 유형 및 양상」 『日本語文学』 33 한국일본어문학회 2007年 6月.
- M. Eliade. 『Symbolism, the Sacred, and the Arts』(박규태역, 서광사) New York, The Crossroad Publ. Co. 1985, p.35.

## 要 旨

本稿は、『日本の民話』(全26卷)の中で蛇のモチーフの話を分類し、その類型及び様相を分析した上で、蛇に現れる象徴性を把握しようとしたものである。民衆の共同作品と言われる動物説話の中で、蛇が主人公に登場する話の類型と、そこに表れる蛇の象徴性を整理すれば次のようである。

最も多いのは、「蛇聾入」の類型で、次に多い類型は「蛇女房」である。この二つの類型は異類婚姻譚に関する話で、蛇の外形が男根と相似して、頭部は女陰を象徴して生命の根源に思われたことからきたのである。そして、稲作時代の水神の象徴である蛇を中心にいろんな話を派生させて、新しい鉄器文明が導入すると、蛇はタブーさせて針に差して退治になることに至る。これは青銅器文明が強力な新しい鉄器文明によって衰えて弱ること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書かれたのである。

三番目の多いのは「蛇の恩返し」類型である。蛇が家に入ると金持ちになる、蛇がとぐろを巻いて甌のようにになっているを見ると長者になる、のような諺から分かるように蛇は福を管掌する力をもっていると考えられたことが分かる。このような話に影響を受けて、一般民衆は福を招来する蛇に好意的にふるまい、その行為によって逆に蛇から恩返しを受るという単純な願いを象徴的に表したものである。

四番目は、「小蛇成長譚」という類型である。これは「蛇の恩返し」類型と同じに日常で福を招来する蛇に、想像中で蛇と一緒に生活しながら蛇から恩返しを受るというのを象徴するものとして書かれたのである。以上の内容を整理すれば、蛇は異類婚姻譚の主役として生命の根源に思われたことを象徴するものとともに、一般民衆に福を招来する役割として象徴的に表したものを分けることができる。

キーワード：日本の十二支の動物説話、蛇のモチーフ、類型、様相、象徴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